

서부 사막 도시 중위

다국적 기업: 상해는 매력적인 투자처

'록색 컴퓨팅 파워 도시' 건설에 박차

우리 나라 서부 사막 도시 념하회족 자치구 중위(中卫) 시가 부존 자원과 지역적 우위를 기반으로 '록색 컴퓨팅 파워 도시'(绿色算力之都) 건설에 힘을 모으고 있다.

최근 중국교통건설그룹이 세운 첫 번째 록색데이터센터 중교(中交) 지능형데이터밸리(념하·중위) 산업단지 문을 열었다. 해당 센터의 총 IT 전력 용량은 140 메가와트 이상으로 6만 P의 컴퓨팅 파워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외에도 중위시에는 아마존, 중국 교통건설,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등 9개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우리 나라 최초로 '1만개 이상 그래픽 처리장치(GPU)'를 갖춘 스마트 컴퓨팅 기지가 들어서면서 26개의 데이터센터 기업을 유치했을 뿐만 아니라 8개의 중앙기관·국가부서·위원회의 재해복구 데이터센터가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

중위시는 지질구조가 안정적이고 주요 지진대와 떨어져 있어 데이터센터의 장기적·안정적 운영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기후가 건조하고 공기가 깨끗해 자연바람을 이용한 램프 기술로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중위시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잇달아 국가(중위) 신형인터넷교환 포인트(IXP), 전국 일체화 컴퓨팅 파



념하회족자치구 중위시에 위치한 중교지능형데이터밸리(념하·중위) 산업단지 스마트제어센터 / 신화넷

워 네트워크 국가 허브 노드로 선정됐다. 전국 최초로 '2개 센터'를 보유한 중위시는 국가 10대 데이터센터 클러스터중 하나로 부상했다.

덕분에 우리 나라 10대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운영업체중 6개 업체가 이곳에 둠지를 틀고 알리바바·바이두(百度)·텐센트·메이판(美团)·금산(金山) 등 5개 인터넷 선두기업의 데이터 사업 부문도 이곳에 위치해있다.

이와 함께 중위데이터센터 클러스터의 표준 랙은 23만개, 첨단 GPU

카드의 연산 규모는 13만 P를 기록하는 등 4개 주요 지표가 2년 연속 2배 증가했다. 중위시는 우리 나라 도시별 컴퓨팅 파워 지수에서 5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중위시는 데이터 전송, 컴퓨팅 파워 공급을 위한 강력한 네트워크도 갖추고 있다. 이미 3,051개의 5G 기지국이 건설돼 27개 중요 도시와 연결된 장거리 전송망을 구축하고 외부망으로 나가는 총대역폭은 22T, 네트워크 신뢰도는 99.99%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 90% 이상 지역과의 전송

시간은 20 밀리초 이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디지털-실물 융합을 심화하며 산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 디지털화 분야에서 스마트공장, 디지털화 작업장을 육성하고 농산물 추적 관리, 스마트 관개 등 기술 응용을 확대하며 사화관리-민생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전기를 먹는 '하마'에 비견되는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중위시는 에너지 스토리지(ESS) 설비 건설, 스마트 전력망 건설을 추진하고 '신에너지+록색전력 직결+가상 발전소+데이터센터'로 이뤄진 록색전력시장 공급 모델을 혁신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안정적인 전력 가격 보장 메커니즘 등 정책 조치를 끊임없이 보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쓰이는 록색전력은 대당(大唐) 중위클라우드기지 데이터센터 록색전력 공급 200만키로와트 신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조달하고 있다.

대당중위신에너지회사(新良) 부사장은 해당 프로젝트중 50만키로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이미 시스택 연결을 완료하고 150만키로와트의 풍력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매년 약 41억 4,000만키로와트시의 록색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신화넷

얼마전 열린 '2026 상해글로벌투자촉진대회'에서 상해가 최고의 글로벌 투자지로서의 강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협장의 다국적 기업들은 상해의 친화적인 상업 환경을 강조하며 중국에서 입지를 더 공고히 할 것을 약속했다.

독일 자이스(Zeiss) 중화권 총재 겸 최고경영자(CEO) 마틴 피셔는 "(상해) 외고교(外高桥)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곳에서 자이스 중화권 본부를 설립했다. 역대 우리 회사의 대중국 투자중 가장 큰 규모이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뒀다."면서 "우리가 중국과 함께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라고 표시했다.

루카넷 최고수익책임자(CRO) 요리스 밴 루엔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상해는 훌륭한 금융 허브라

고 생각한다. 우리 회사를 놓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곳은 지역 경제의 성장을 보여준다. 상해의 투자 허브가 전문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또한 중국 시장을 우리 회사의 성장 시장중 하나로 보고 있다. 우리는 10년전 이곳에 투자했다. 우리 회사의 중요한 전략 시장이다. 상해를 시작으로 북경 등 중국 본토로 사업을 확장하며 성장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우리는 중국을 믿는다. 이곳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이곳의 고객들과 함께 협력해나갈 것이다.

지난해 상해에 등록된 신규 외자기업은 6,300개 이상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지난해말 기준 상해에 들어선 다국적 기업 본부와 외자연구개발(R&D) 센터는 각각 1,076개, 636개에 달했다. / 신화넷

향주

드론이 차잎 나르고 IoT가 차밭 관리



3월 20일, 서호 룡정차(龙井茶) 1급 보호구역의 핵심지인 룡정촌에서 명진차(明前茶)를 수확하고 있는 일꾼들. / 신화넷

절강성 향주시 서호(西湖) 룡정차(龙井茶) 1급 보호구역 핵심산지인 룡정(龙井) 촌과 웅가산(翁家山) 촌에서는 농민들이 차잎을 따느라 분주하다.

그런데 올해는 레년과 다른 풍경이 눈에 띈다. 차잎을 줍어지고 산을 오르내리던 농부 대신 드론이 왕왕거리며 방금 딴 차잎을 싣고 안정적으로 착륙하고 있는 것이다.

웅가산촌촌민위원회 손빈(孙斌) 주임은 "예전에는 사람이 산에서 직접 줍어지고 내려오다 보니 이동중 차잎이 쏠리면서 품질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드론 4대와 조종사 6명으로 구성된 드론팀을 꾸려 차잎 운반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차밭 관리와 겨울철 비료 작업에도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몇년전부터 사물인터넷(IoT) 장비 도입하기 시작했다. 위성기상 관측소와 토양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해 관개와 시비 시기를 모두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손빈은 "첨단기술 덕분에 전통 제다(制茶) 기술에 날개를 달게 됐다."며 "차잎을 신속하게 산 아래로

운반해 마찰을 줄이면서 품질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향주 서호풍경명승구 농가락(农家乐) 레저관광협회 무아금(缪雅琴) 회장은 차와 문화관광의 창의적인 융합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마을 내 모든 차집이 메뉴를 새롭게 개발해 차를 식탁 위에 올리고 나아가 차 잎 판매까지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은 2대, 3대에 거쳐 다업을 잇는 젊은 세대들의 귀향 소식이다. 무아금은 "젊은이들은 창의력이 남다르다."면서 "쿨드브루차(冷萃茶), 차와 과일주를 혼합한 음료 등을 선보이며 룡정차를 즐기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손빈은 "지난해부터 차밭에서 음악회를 열기 시작했는데 공연마다 2,000명 넘는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화관광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마을 전체 분위기도 한층 활기를 띠게 됐다."고 말했다. / 신화넷

경진기 교통망 고도화 가속... '1~2 시간 생활권' 현실로

경진지역 교통망이 단순한 연결을 넘어 '빠른 연결' 단계로 업그레이드됐다.

오늘날 전 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교통망이 세 지역의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북경시 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경진기 세 지역의 철도와 고속도로 총길이는 1만 1,000킬로미터를 넘어 지난 2014년 대비 약 40% 증가했다.

경진기 전역의 모든 지구급시(地级市)가 고속철로 연결됐다. 경할(북경-할빈) 고속철도, 경당(북

경-당산) 도시간 철도, 진흥(천진-대흥) 도시간 철도 등 중대 프로젝트가 개통되면서 세 지역 주요 도시간 이동 시간이 1.5~2시간대로 단축됐다.

또한 경웅(북경-웅안) 도시간 철도 개통, 경웅고속도로 직통, 웅안신

구-북경대항공국제공항 급행선 하복 구간 궤도 부설 완료 등 다양한 교통 서비스가 비수도 가능 분산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간 산업 협력과 인재 교류, 민생 연결이 한층 원활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 신화넷



산동성 청도시 로산(崂山) 구에 위치한 청도시 인간형 로봇 데이터 수집 훈련장에는 인간형 로봇 데이터 수집 씨나리오가 마련되어 있다. 데이터 수집원들은 로봇을 조종하여 물류 분류, 부품 조립 등 특정 작업을 완수하며 수천수백번의 반복과 시행 착오를 통해 방대한 량의 동작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를 통해 로봇에 더 지혜로운 '똑똑한 두뇌'를 부여하고 인간형 로봇의 지능화 실현을 위한 '마지막 1킬로미터'를 해결하여 인간형 로봇이 각종 산업에 진입하고 천가만호를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진은 3월 23일, 훈련장에서 작업일꾼들이 인간형 로봇을 훈련시키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장면이다. / 신화넷

图说 核心价值观

中华圆梦 万马奔腾

友诚敬爱法公平自和文民富 善信业国治正等由谐明主强

河北蔚县 焦新德作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